

# Daily Auto Check

2020. 6.30(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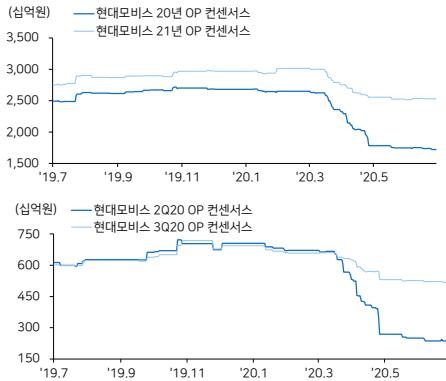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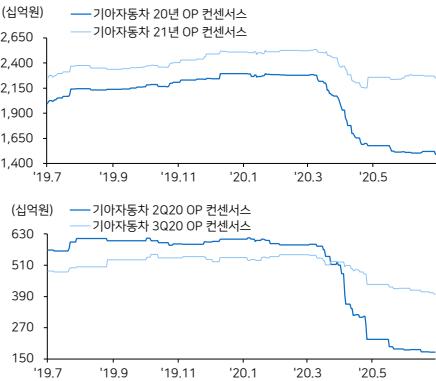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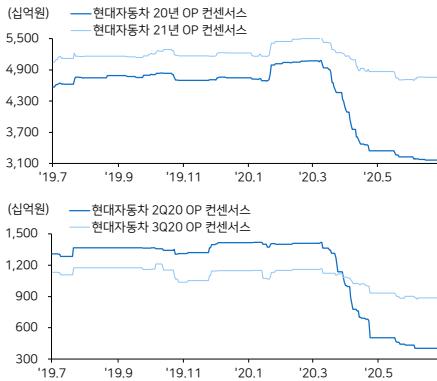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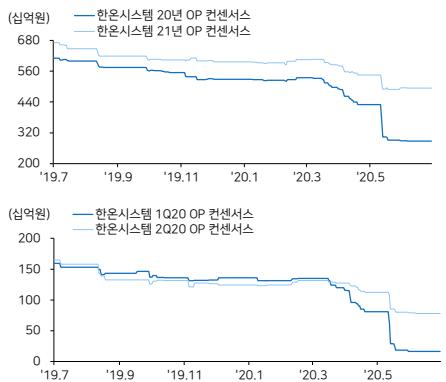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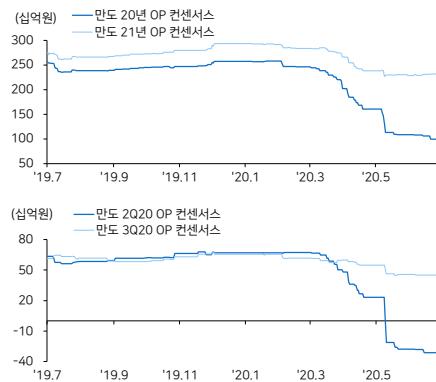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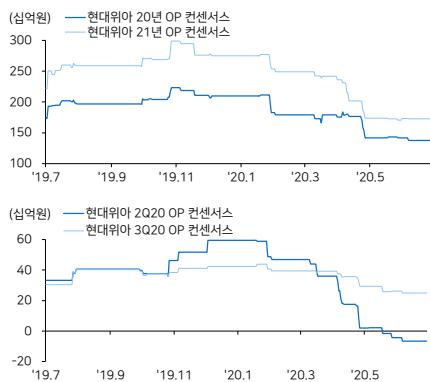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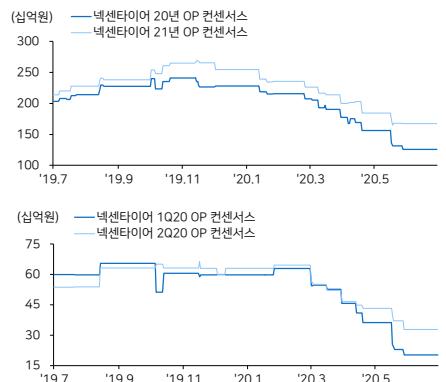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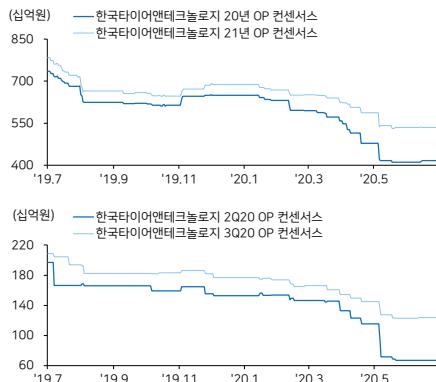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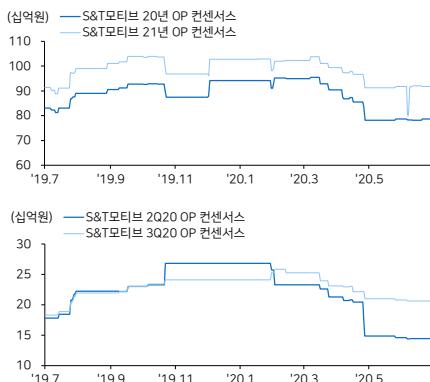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G80 · GV80 출고 앞당기자"...현대차, 특별연장근로 실시 (서울경제)

현대자동차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일부 생산라인에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기 차종인 제네시스 'G80'과 'GV80' 출고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  
<https://bit.ly/2NGH8oZ>

## 스마트폰으로 기아차 9개 차종 문 연다...19만8천원 (ZD코리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아차 9개 차종의 문을 열 수 있게 됨. 기아차는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와 함께 '더 드라이빙 앱(The Driving APP KEY)'를 선보인다고 밝힘.  
<https://bit.ly/3gd8krw>

##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차남 조현범에게 주식 모두 넘겨 (세계일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후계자로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이 낙점된 것으로 보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사장을 지난 26일 불로寻常으로 아버지 조 회장의 자리를(23.59%)을 모두 인수해서 최대주주로 등극.  
<https://bit.ly/2Bntrsr>

## 미국 민주당,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 달성을 계획 낸다 (뉴스핌)

미국 민주당이 2035년까지 100% 청정 자동차를 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오는 30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기후위기선정위원회가 기부변화 대처안을 발표한다고 보도.  
<https://bit.ly/3gb0OLc>

## 마을버스도 전기차 시대,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 출시 (조선비즈)

현대차는 중형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출시. 중형 버스는 15~33인승이며 마을버스나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많이 쓰. 카운티 일렉트릭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버스 모델 카운티를 전기차용으로 바꾼 것.  
<https://bit.ly/38k2vGk>

## 필리시이드급 실내 갖춘 전기차 NE···비결은 인휠 모터? (한국경제)

내년에 등장할 현대차의 전기차 NE를 두고 자동차 업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음. 일각에서는 자동차 바퀴 안에 모터를 짊어넣어 바퀴별 독립 제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기술인 '인휠 모터'가 탑재될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음.  
<https://bit.ly/38ax4JA>

## 미연공 공개 회사체 장바구니 열어보니···자동차 · IT '최대 수혜' (조선비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한 가운데 매입대상 기업명단 공개. 매입 비중을 고려한 최대 수혜기업은 도요타, 폭스바겐, 달리어 등 자동차 대기업과 애플, 버라이즌 등 IT기업으로 나타남.  
<https://bit.ly/2Vpyt1B>

## 유럽 각국, LPG차 보급 확대 지원 정책 강화 (이투뉴스)

유럽 각국이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음. LPG차가 동급의 가솔린 차량보다 이산화탄소를 20% 적게 배출하고,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유류비는 가솔린차량보다 30% 적게 드는 경제성 높은 차량이라는 판斷.  
<https://bit.ly/3eL3mSN>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